

# 디자이너·의사 등 전문가 멘토… 청소년 ‘꿈의 격차’ 해소

**SAMSUNG**

‘드림클래스 2.0’ 행사 온라인 개최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대변화에  
교육플랫폼 온라인 방식 전면개편  
영어·수학 중심의 기존 학습구성  
문제·수리력, 글로벌 역량 ‘확대’



지난 2016년 1월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드림클래스 겨울 캠프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캠프에 참여한 중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은 1일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캠퍼스에서 ‘드림클래스 2.0’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된 교육 방식 등 신규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상등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했다면 서 이번 드림클래스 개편 배경을 설명 했다.

드림클래스 2.0의 목적과 방향은 기 존 교육격차 해소에서 ‘꿈의 격차’ 해소로 새롭게 설정됐다. 이에 따라 드림클래스 2.0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진로를 찾아 갈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습 구성도 기존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춰야 할 미래 역량인 문제해결·수리력·글로벌 역량·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로 확대·강화됐다.

삼성은 드림클래스 2.0 미래역량 교육 콘텐츠로 ▲독서 탐구를 통한 감성·사고·표현 및 소통력 강화를 위한 ‘독토크’ ▲실생활 중심의 외국어 소통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행아웃’ ▲수의 원리와 개념을 깨뚫고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논리수리’ ▲스스로 고민하고 창조하는 코딩으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코딩파티’

진로·독서 등 전문가 50명 선발  
교과별 질의 응답, 피드백 제공

개발자·호텔리어 등 직원 100명  
직업관련 경험·조언 등 ‘재능기부’

등을 제시했다.

기존 주중·주말 교실과 방학캠프를 통해 이뤄졌던 영어·수학 기초학습 교육은 학생별 수준을 감안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된다.

참가 학생들은 진로탐색 20시간, 미래역량 80시간, 기초학습(영어·수학) 80시간 등 연간 180시간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은 우수 학생에게 ‘드림클래스장학금’을 제공하고 삼성 사업장 견학, 고교·대학팀방, 특강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입체적인 멘토링 제공…기기 지원도 아끼지 않아

멘토링도 확대한다. 기존 대학생 멘

토 뿐 아니라 전문가와 삼성 임직원이 참여하며 입체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드림클래스 2.0에서 기존 ‘과외교사’ 역할에 머물렀던 대학생 멘토 500명은 중학생들의 ‘온라인 담임 교사’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드림클래스 교육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진도를 관리하고 정서적 공감과 지지 등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은 미래역량 교육 콘텐츠에 맞춰 진로·SW·독서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교과별 질의 응답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충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삼성 임직원 100명도 재능 기부 형태로 진로 멘토링에 참여한다. 개발자·디자이너·의사·호텔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삼성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활동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실제 경험과 조언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삼성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중학생 5000명 규모로 올해 드림클래스 2.0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교육 여건이 미흡한 중학생 위주로 선발하되 군부사관 자녀·소방관 자녀·해양경찰 자녀·국가보훈 대상 후손 등 사회 기여자 자녀의 중학생도 일부 포함된다.

삼성은 모든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갤럭시 탭 A70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드림클래스 2.0 기념 행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드림클래스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학생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학생들이 꿈을 찾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대 기자 cd1@metroseoul.co.kr

## “단순변심 매각계약 파기, 이례적 행보”

》》 1면 ‘남양유업 M&A’서 계속

홍 회장에 따르면, 한앤코 측이 거래 종결 이전부터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사전에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채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다.

이에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계약이행을 위한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무산됐고,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도과됐기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드러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홍 회장의 지분에 빌어 묶여 먼 미래에 놓이게 됐다. 양 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소송전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앤컴퍼니가 법원에 신청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 가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1일 확인돼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 외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매각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이 지난 5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남양유업의 주식처분금지 가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한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가 묶이게 됐다.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지분을 재매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한앤코의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원매자를 찾아나서기 어렵게 된 것이다.

투자은행 업계는 홍 전 회장이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으나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남양유업 거버넌스 리스크가 높다는 평판이 쌓이며 향후 경영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회장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에 나섰음에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 행보는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M&A 시장에서 매각 결렬 사례를 고려할 때 대체적인 견해는 홍 회장 측이 남양유업을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을 경우 전체 거래대금의 10~20% 가량을 한앤코에 배상하며 매각 결렬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사업·성장·일하는 방식, 생각 바꾸고 친환경소재 기업 전략 실행력 높여야”

‘2021 포스코포럼’ 개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철강→친환경 소재기업 전환 위해 세계 정치·경제 흐름 등 대응 주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철강기업에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정치·경제적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을 주문했다.

최정우 회장은 1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1 포스코포럼’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기후 변화 위기는 한층 고조돼 탄소중립 시대는 앞당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포럼은 지난 2019년부터 포스코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 소재로 100년 기업의 길을 가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조망한다.

최 회장은 “출구가 보이는 듯했던 코로나 충격은 다양한 변이와 돌파 감염으로 새로운 위기로 이어지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요구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하고 있다”며 “포스코포럼이 사업방식과 성장방식, 그리고 생각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친환경 소재 전문 메이커로서의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포럼으로부터 얻게 될 높은 통찰력을 기대했다.

올해 포스코포럼의 강연 내용 역시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와 경제구조의 방향을 진단하고 철강산업과 친환경 소재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첫째 날에는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과 신(新) 국제 질서’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하고 ‘세계 경제 질서 어떻게 바뀌나?’

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가 세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향방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둘째 날에는 철강산업의 핵심 경쟁력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개발 동향과 로드맵을 살펴보고 미래차 배터리 공급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 경쟁과 협력 속에서 2차전지소재 생태계의 변화와 자동차사들의 배터리 내재화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변신의 시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며 여러 기업들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과 도심 항공모빌리티, 제로에너지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며 그룹 사업의 성장기회를 찾는다. 한편 포스코는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사업계획과 중기 경영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반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